

##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부정한

###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454
----------	-----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20일

발 의 자 : 김용석, 신원철, 서윤기,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순선,  
권영희,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동식,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수규,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 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 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김소영, 권수정  
의원(104명)

## 1. 주 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미 법적으로 규명된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부정하며 희생자와 유가족 및 관련자들의 인격모독성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함.

## 2. 제안이유

-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4.19혁명에서부터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으로 이어져 오며 민주이념을 계승해왔고, 마침내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정농단세력을 단죄하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로 이어져왔음.
- 그러나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미 법적으로 규명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망언을 쏟아내며 역사를 폄훼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이자 범죄행위를 자행하였음.
- 따라서 대한민국 민주화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5.18 정신과 국민을 능멸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게 국민과 역사 앞에 진정으로 사죄할 것과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대한민국헌법」 등
- 나. 기타사항

### 4. 이 송 처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한애국당, 민중당)

##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부정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이념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우리 국민들은 독재와 억압에 맞서 희생과 피로 싸워 왔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이 정한 민주이념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을 열었고, 이는 다시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함으로써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쟁취하며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를 이어왔다.

이렇게 지켜낸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하여 대표권을 위임받은 모든 국회의원의 사명이자 의무다.

그러나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 “5.18 유공자는 세금을 축내는 괴물 집단”이라며 혐오와 폭언이 섞인 망언을 하며, 이미 법적으로 규명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했다.

이러한 망언은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피로 쟁취한 대한민국 민주혁명 역사를 부정하는 쿠데타이자 범죄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해당 의원은 진정성 있는 사과는 커녕 연이은 억지 해명과 거짓 선동으로 국론분열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꼼수 제명과, 망언의 당사자들에 대해 전당대회 출마를 핑계로 징계를 유예하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오만방자한 징계 결과를 내놓으며 또 한 번 우리 국민의 분노를 비웃고 기만했다.

이번 5.18 민주화운동 폄훼 망언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수호자 이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 질서를 위협하며 역사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사건으로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를 능멸하고 국민의 숭고한 민주투쟁을 욕보인 것으로, 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부정하며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이를 방조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5.18 민주화운동을 능멸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는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2.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부정한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3. 국회는 더 이상 5.18 정신이 폄훼되고 역사가 왜곡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9. 2.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